

# ‘자비 모금함’ 신고 다니는 부산 택시

## 부산개인택시불자회 창립 26주년 맞아

‘거리의 표표사’ 부산개인택시불자회(회장 심연섭)가 창립 26주년을 맞았다. 부산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28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부산개인택시불자회는 10월 23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26주년 기념법회를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 활동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법석을 마련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청소년 20명에게 5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단체 발전에 이바지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로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서 수불 스님은 모범회원 15명에게 불교연합회장상, 연합신도회장상 등을 전달하며 앞으로도 택시불자회로서 자비행을 꾸준히 실천해 달라 당부했다.

부산개인택시불자회는 이날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뿐만 아니라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민)에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 1988년 7월 첫 창립법회

### 95년부터 자비활동 나눔시작

### 2011년 사직동에 자비정사 개원

한편 부산개인택시불자회는 전 부산불교신도회 부회장이었던 차현규 초대회장을 중심으로 150여 명의 회원들이 1988년 7월 부산불교신도회관에서 첫 창립법회를 가지며 결성됐다. 이후 매달 한번씩 정기 법회와 매년 창립법회를 봉행하며 꾸준한 신행을 이어왔다. 1995년에는 장애인연합회 컴퓨터 기부, 노인요양복지관 방문 및 무료급식 등 본격적인



창립26주년기념법회에 참가한 부산개인택시불자회원들이 합창하고 있다.

자비 행보를 시작했고 이후 2011년 부산 사직동에 자비정사를 개원함으로써 신행의 기틀을 마련했다.

부산개인택시불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비 활동이 있다면 인재 불사를 위한 학자금 전달과 교통봉사다. 이유인즉 50·60세 이상으로 구성된 부산개인택시불자회원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해야 했던 세대들이기 때문이다. 회원들은 각자 개인 택시 차량에 자비의 모금함을 설치해 실시할 만인 승객들의 보시금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다른 신행 단체와 차별화되는 교 통봉사도 회원들의 주요 활동이다. 부산불교연합회의 팔관회, 봉축법요식 등 부산 내 사찰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교통정리를 맡아 원활한 행사 진행을 돕는다.

우제철 부산개인택시불자회 부회장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지속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사회를 위한 보시행이 결국 나를 위해 회향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며 “나로 인해 사회가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것에 그저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나영 객원기자

# 하루라도 스님처럼 살고자 발원

## 부산불교연합회, 팔관회 수계법회

신라·고려시대 호국불교 의식을 재현하는 ‘2014 팔관회’가 성황리에 봉행됐다. 10월 18일 부산 용두산공원에서 국왕친영행렬 재현으로 막을 올린 팔관회는 10월 19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나라의 평안을 발원하는 전통의식 및 공연을 선보였다.

이번 국왕친영행렬은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이 국왕으로 분장해 용두산 공원을 시작으로 광복로 일대를 행렬했고, 이어진 호국가원법회에서는 개회선언, 호국가원문, 대화사, 봉행사 등의 순서로 팔관회의 시작을 알렸다.

사리 무비 스님(문수선원 선원장)이, 칠증사(七證師)에는 존증아사리 지현 스님(조계총림 송광사 율주), 수진 스님(금정총림 범어사 율주), 학승가대학원장, 원허 스님(쌍계총림 쌍계사 전 율원장), 정각 스님(부산불교연합회 교문), 종학 스님(부산불교연합회 교문), 무원 스님(부산 삼광사 주지), 원록 스님(태고종 원로의원) 등 대덕스님들이 대대적으로 나서 수계식을 엄숙하게 거행했다.

교수아사리 무비 스님은 “팔관제계를 지킨다는 것은 하루밤이라도 거둬야 한다”고 전했다.

이후에는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을 비롯한 칠증사가 수계자들에게 마정수기 의식을 거행하며 팔계를 지켜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부산불교연합회는 2014 팔관회 수계식을 통해 각박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인간성 회복의 계기를 심어주고 가을이불을 전할, 김장나누기, 잔치국수 만발공양 등 나눔행사도 진행해 팔관회에 의미를 더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이 마정수기를 내리고 있다.

## 시민들과 함께하는 갯바위 소원성취 축제

팔공산 관광 갯바위 선본사(주지 성본)가 주최하는 ‘제14회 경산 갯바위 소원성취 축제 음악회’가 10월 17일~19일 갯바위 공영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행사 3일간의 스님들의 법문이 열려 주목을 끌었다. 10월 17일에는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이 “팔공산 관광 갯바위 선본사 자락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아담법석을 열거됨에 감사하다”면서 “이 행사를 통해

갯바위가 기도처 도량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나눔의 도량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10월 18일에는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의 법문과 10월 19일은 갯바위 선본사 주지 성본 스님의 법문이 이어졌다.

14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통일북소리 등의 공연과 합주, 장기자랑, 음악회 등이 이어졌고 생활도자기, 소원연꽃 등 컵 만들기 체험부스가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소원나무 소원달기, 갯바위 일일 소원성취 등 반대회 등 부대행사도 이어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통도사-코레일, ‘힐링 기차 캠프’ 출시

### 지역관광 및 여행문화 활성화 MOU 체결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와 코레일이 의기투합해 기차여행 상품 ‘다·가·치(茶·歌·致) 힐링 캠프’를 내놨다.

10월 22일 통도사가 지역 관광발전 및 신개념 여행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본부장 방창훈)와 체결했다.



신경남본부가 국내여행 프로그램 컨텐츠를 공동개발, 양측간의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힐링캠프를 원활히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가·치 힐링캠프는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KTX 및 연계차량을 포함, 통도사 관광은 물론 통도사 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약식·사찰음식 실습, 자연건강 숲명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이와함께 당일치기로 진행되는 자유투어는 KTX와 연계 차량이 포함된 통도사 관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양측은 올해 7월부터 힐링캠프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진력해 왔으며 9월 다·가·치 힐링캠프와 자유투어 프로그램을 KTX 여행프로그램으로 등록했다.

이번 협약은 통도사와 코레일 부

방창훈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형식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통도사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등 지역 및 통도사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통도사와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장이 공동개발한 다가치 힐링캠프와 자유투어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http://www.letskorail.com)에 게시된다.

김나영 객원기자

## 연제구 내 사찰 단합...지역활동에 진력

### 부산 연제구불교연합회 조직 재정비

부산광역시 연제구불교연합회 제2대 회장으로 해월정사 주지 원허 스님이 취임했다. 10월 23일 연제구청 강당에서 거행된 연제구불교연합회장 및 신도회장 이·취임식에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장 수불 스님, 연제구연합회 초대회장 원광 스님(정수사 주지)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해월정사에서 개최된 임시총회를 통해 제2대 회장으로 원허 스님을 선출했다.

원허 스님은 취임사에서 “불심의 도시 부산, 그중에서도 연제구는 행정의 중심이다. 그간 부산은 불교계 주요 행사의 주축이 되어 활동해 왔지만 정작 연제구 지역 내에서 함께 모여 일을 도모하는 것은 미비했던 것 같다. 이 자리를 계기로 연제구 지역 내 포교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제구불교연합회는 1993년 초대회장인 정수사 원광 스님을 포함한 연제구 내 20명의 스님으로 결성됐다. 그 후 지역 내 무료급식, 불자장학사업 등 소외이웃을 위한 활동에 진력해 왔으며 올해 6·7월

이번 취임식으로 조직을 재정비한 연제구불교연합회는 회장인 원허 스님(해월정사 주지)을 중심으로 수석부회장 보당 스님(보국사 주지), 사무총장 진각 스님(송광정사 주지), 법승 스님(화엄사 주지), 해성 스님(용화사 주지), 건우 스님(법경사 주지), 법호 스님(정토사 주지), 도명 스님(소원사 주지) 등 총 8명의 스님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연제구불교연합회장은 이해동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 선출됐다. 김나영 객원기자

김나영 객원기자

## 원공당 정무 대종사 3주기 추모음악회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가 10월 17일 법왕문화관 3층 법당에서 원공당 정무 대종사 스님을 기리는 3주기 추모음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문중스님들과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법의

진리의 길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은사 스님의 감사함에 더욱 머리가 숙여진다”면서 “표교의 1인자 부르나 존자가 되라고 하신 스승님의 말씀 따라 길어가는 가을날 스님을 그리며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마나면 표교의 길로 묵묵히 가고자 한다”며

스승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전했다.

이날 추모음악회는 대구불교방송 ‘아름다운 만남’ 진행자인 효민 스님이 사회를 맡고 도신 스님과, 심진 스님, 상정 스님, 수월 스님 등이 출연했다. 그리고 국악가수 권미희 민속춤에는 유희연 표교사, 우담바라 합창단, 연합합창단, 해오름사물단 등이 공연무대에 올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행원승가연합회, 자연사랑 실천

행원승가연합회(회장 도경)는 10월 19일 대구 남구 앞산 총흔탈 앞에서 주변의 생활쓰레기를 줍고 자연 정화를 ‘화두’로 회원스님들과 법석을 가졌다.

회장 도경 스님은 “일상생활의 습

관화 된 삼독, 삼업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버리고 부처님처럼 하심으로 순수 보시행을 하자”며 “오늘이 자연사랑, 마음청정, 행선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인 300여 명의 사부대중은 앞산 등반객들에게 음료수, 떡, 장갑, 펄러 등을 보시하며 자연사랑과 마음청정의 중요성을 알렸다.

행원승가연합회는 종단총파를 초월한 대구경북 지역 스님들의 모임으로 ‘자연사랑·마음청정·행선’을 목적으로 2014년 5월 19일 창립했다. (053)581-0233 손문철 대구지사장

# 내 삶의 전환점 대비주를 만나다!

## —산 법상스님 구미 대비주 법회

**일 시** | 2014년 11월 9일 (일) 오후 1시 20분 ~ 5시  
**장 소** | 구미 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120 / TEL 054-454-6601/5)  
**내 용** | 대비주 수행법문, 대비주 49독, 축원, 합동천도재  
**동 함 금** | 1인 1만원, 설판재자 1인 35만원, 영가1위 35만원  
**차량운행** | 일산 덕양선원에서 07:30 출발  
**문 의** | 덕양선원 031. 907. 7172. / 구미 수행회 도연 010. 3531. 7500

## 구미 대비주 수행회

경기도 일산의 <덕양선원>을 본원으로 하고 구미/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대비주 수행의 전국화, 세계화>에 앞장서고자 출범한 수행단체입니다.

## ☀ 대비주 수행도량 덕양선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43-7 메리트원 BD 607호 (031.907.7172)  
 다음카페 http://cafe.daum.net/zeol



덕양선원 —산 법상스님은

2004년부터 시작된 대비주 수행 10년 결사를 금년 4월에 회향하고 2024년까지 새로운 10년 결사에 돌입, 전국 각지에서 참가하시는 대비주 수행자들과 함께 매주 금요일(저녁 7시 30분)마다 치열하게 정진하고 있습니다.

- BBS 불교방송 대비주 수행 지도법사 (2005년 ~ 2013년 12월)
- BTN불교TV '대비주 수행' 강설 (2012년 10월 ~ 2013년 10월)
- 저서 : - 다라니 수행 (일산 법상 지음 / 비움과소통 / 15,000원)  
 - 다라니의 힘 (일산 법상 지음 / 비움과소통 / 15,000원)  
 - 내 생애 단 한번 뿐인, 오늘 (수행예화집 / 10,000원)  
 - 대비주 수행의 힘 (덕양선원 엮음 / 12,800원)
- 음반 CD : 신묘장구대다라니 음반 (10,000원)

# ‘대비주 수행’이란?

대비주(大悲呪/신묘장구대다라니)를 지송하며 대비주(大悲主/자성불 참나 주인공 등)로 사는 수행입니다.

대비주 수행은 스스로 밝고 주위를 밝힙니다. 위로는 조상님과 수행으로는 가족들과 깊은 인연들, 아래로는 자식과 후손들이 해탈하고 성취하는 수행입니다.

—산 법상스님의 <대비주 수행>과 <자성불 수행>은 남녀노소 빈부차별 직위고하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수행이며, 과거의 업장을 소멸하고 현재의 소원을 이루고 대원을 향하여 최상의 길을 여는 관세음보살님의 수행법입니다.

‘일체중생을 이익되게 하라’는 관세음보살님의 서원이 오늘날 —산 법상스님의 서원이 되어 펼쳐지는 ‘대비주 수행’

대비주는 언제나 최상의 길을 여십니다.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행복한 수행을 함께 합시다.